



배려하는 말의 지혜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인간은 생각을 소리를 내어 말로 전하며 그것을 문자로 전하는데 문자에는 뜻글자와 소리글자가 있으며 말의 소리를 문자로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소리글자다.

우리글인 한글은 세계 문자 중에서 으뜸으로 금메달을 받은 소리글자며 우리 민족은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로 우리 말을 말소리대로 전하며 글을 쓴다. 생각이 표현이 말이며 말을 전하는 것이 문자며 글이다.

하버드대학 교수가 한국어 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글로 전하는 인쇄술이 서양보다 앞섰으며 (금속활자사용: 독일인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섰음) 말을 글로 표현하는 독창적인 한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고려 시대 서희 장군은 능란한 말솜씨로 거란족을 굴복 시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말은 인간의 생각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효과를 낸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 교과로서 수사학(修辭學)이라는 이름으로 중세 서양에서는 가르쳤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언행에 대한 교육을 가정에서 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지혜를 배워서 몸에 익혀야 성공할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교수용어라 하는데 교사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교육 '도라' 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에 대한 7계명은 1.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다. 2. 다른 사람 이야기 도중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3.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4.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5.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6.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한다. 7.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로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대화(對話)할 때는 상대방 말을 듣는데 비중을 두며 말소리의 크기는 장소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상대방이 알

아들을 수 있는 크기로 하며 내가 할 말은 줄이고 상대 말을 경청(敬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말에는 칭찬하는 말과 꾸중하는 말이 있는데 칭찬하는 말은 여러 번 해도 좋아하지만, 꾸중하는 말은 두 번만 해도 잔소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꾸중하는 말을 줄이고 칭찬하는 말을 찾아서 해야 한다.

어느 병원의 로비에 걸려 있는 글에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만나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言)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라는 글이 있었다. 말 한마디는 환자의 병을 치유(治癒)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를 배워서 남을 배려하고 돕는 말을 해야 한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 들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었다. 아내는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다.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며 '절뚱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절뚱이 부인'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창피해서 더는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 갔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크게 뉘우쳤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을 '박사님' 이라 불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불러 주었다. 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온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이 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다. 상대를 낮추며 자신을 올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므로 배려와 존중의 말로 자신의 격을 높여야 한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말하는 수사학의 지혜를 배워서 실천해야 하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격언을 명심하고 배려하는 말의 지혜를 배워서 말을 잘하자.

칼럼

가족 같은 가족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양승호 무안소방서 화재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기고



이번 강원 산불은 50년 만에 찾아온 지독한 가뭄을 틈 타 우리 산야에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올 1·2월에 집중 된 산불은 148건으로 60ha이상의 삼림을 태웠고, 주택과 농가살림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특히 이번 산불에 평생을 키워 온 소들이 전부 피해를 입어 생계가 막막하다는 농가의 인터뷰를 접했을 때 소방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아픔을 통감하며 이번 글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안타깝게 피해를 입는 축사화재에 대해 운을 띄워 보려한다.

일반적인 축사화재는 가족의 종류를 불분하고 대부분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보온을 위한 열풍기나 전열기, 양계장 산란을 위한 등화시설 등 노후화 된 전기용품과 배선들이 주요 화재원인으로 손꼽히고, 다음으로 축사 내에서 발생한 먼지나 분진들이 화재발생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축사에 사용하는 보온재들은 불연/방염 등과는 거리가 먼 비닐이나 우레탄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화재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아쉽게도 이런 축사는 주민들과의 민원으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 권장하는 대책은 아래와 같다. △정격에 맞는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 △노후 전기시설 개선 및 시설 내 먼지나 분진 수시 제거 △설치처에 의한 피복 손상이나 전선 단락으로 인한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한 금속배관 사용 △소화기 등 충분한 소화기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 등이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했다. 미리미리 대비해 두면 나중에 큰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평생을 키워 온 자식 같은 가족들 안타깝게 부주의한 화재로 잃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우리 축산농가들 안전하고 부자되는 나라가 되길 바라본다.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자

김현성 순천경찰서 신대파출소 순경

기고



요즘 자동차는 가정당 2대 이상 소유하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자동차가 범죄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명 '차털이'라고 불리는 차량 내 절도가 개박과 동시에 관내에 빈번히 발생하고, 줄어들 기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차털이'는 주로 심야 시간에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어보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상대로 가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 문을 열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고가의 지갑 등을 가는 절도 범죄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 이면가에는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검거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 확인 후 차량 내 귀중품 등을 가져가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차털이 범행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범죄유형이 되어 버려 청소년들의 조기 비행이 차털이 범죄에서 시작된다는 현실도 우리가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주의를 기울임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차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는 ① 잠시 정차할 때에도 차량 문은 반드시 시정을 한다. ② 차량 안에 현금,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않는다, ③ CCTV의 사각지대는 피하여 주차를 한다. ④주차 후 차량이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우리가 차량의 편리함을 이용하면서 작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간단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털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교차로 우회전, 안전을 위한 일시 정지

임성학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최근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장 활동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이며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전체보행사고 사상자 비율 중 우회전 사고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회전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25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 53.8%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26.9%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로 인해 교차로 우회전 시 상행별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23년 1월 22일

부터 부여되어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 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됐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

또한 22년 7월 12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 정지'였던 법 조항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개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대기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라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하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키워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